

“코로나19로 어린이 학습 손실 극심”



▲ 지난 2년 동안 미국 어린이들의 상당수는 극심한 학습 손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미국의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학습 손실을 겪어 교육계와 전문가들이 이를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미 교육부의 전국 통계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어린이들은 20년 만에 최저의 독해력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까지 9세 어린이 기준 평균 독해력 점수는 500점 만점에 215점으로 1990년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또 수학 평균점수는 7점이 떨어져 234점에 머물렀다. 이는 1970년대부터 장기 집계한 통계상 가장 크게 떨어진 점수라고 WSJ는 밝혔다.

WSJ에 따르면 학습 손실이 더 큰 지역은 원격 수업을 더 오래 지속한 지역들이며, 특히 빈곤층 비율이 높은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일부 지역 학생들은 여전히 원격 수업을 계속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부 학생들은 서서히 학습력을 회복하고 있지만, 4학년생 기준으로 지금의 평균 점수 저하를 만회하는 데에는 특별히 학습 진도를 강화하지 않는 한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WSJ는 보도했다. 그때까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방 정부의 특별 교육지원금도 모두 바닥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서거 찰스 왕세자 왕위 계승

영국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영연방의 수장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96세로 서거했다.

영국 왕실은 8일 여왕이 이날 오후 스코틀랜드 벨모럴성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왕위 계승권자인 여왕의 큰아들 찰스 왕세자가 즉각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다만 찰스 왕세자의 대관식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을 마치고 몇 달이 지난 후에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왕위 계승 서열 1위 자리는 아들 윌리엄 왕자가 계승했다.

여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뒤 영국의 군주와 영연방의 수장 자리를 지켜왔다. 영국 최장수 군주이면서 세계 역사상 두번째로 오랜 기간 재위하며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여왕은 즉위 70년 만에 임무를 내려놓게 됐다.

BBC는 이날 왕실 전기 작가를 인용해 여왕의 장례식이 관례에 따라 약 10일에 걸쳐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실은 가족들이 여왕 시신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먼저 버킹엄 궁전에 시신을 안치한다. 이후 여왕의 시신을 영국의 국회의사당인 웨스트민스터홀로 옮겨 대중들이 조의를 표할 수 있도록 며칠



▲ 지난 8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로 서거했다. 사진=shutterstock

동안 안치된다. 장례식은 사망 후 10일째 되는 날, 영국 성공회의 요람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열린다. 이날은 국가 애도의 날이 선포되고, 런던의 상징인 빅벤 시계탑은 장례식 당일 오전 9시에 종을 울린다.

“중간선거 앞두고 민주 지지층 결집 두드러져”

중간선거를 두 달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공화당 지지층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후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지난 2~6일 전국의 1천634명의 등록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해 7일 공개한 결과(오차범위 ±2.6%포인트), 중간선거에서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답한 민주당 지지층은 48%였다.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공화당 지지층은 45%였다.

만약 오늘이 선거라면 어느 당 후보자에게 투표하겠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5%가 민주당, 40%가 공화당이라고 각각 답했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유권자의 표를 더 얻고 있는 데다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투표 확실층 역시 민주당이 앞서면서 민주당이 조금은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낙태 금지 판결이 선거 판세를 뒤흔든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이 압도할 것이라 전망이 대세였다.

선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이지만 여전히 40%대로 낮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1946년 이후 19차례의 역대 중간선거에서 1998년과 2002년을 빼고는 하원의 여당 의석이 줄었고, 이 기간 상원 역시 13번의 선거에서 여당 의석이 감소한 점도 민주당엔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 일	광	옥		2 주	먹	구	3 구
생			4 아	량			세
일		5 탄	성		6 입		대
7 대	8 비			9 말	주	10 변	
	11 덩	12 어	리			13 죽	14 장
15 유		플		16 맞	선		유
력			17 얼	짱			유
18 시	스	루	록		19 청	구	서

